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이게 차별이라고?

글 고수산나 | 그림 이경택

스폰북



이게 차별이라고?

- 글: 고수산나
- 그림: 이경택
- 출판사: 스펀북
- 정가: 13,000원
- 분량: 128쪽
- 대상: 초등 3학년
- 키워드: #차별 #평등 #공정 #배려 #이해

📖 책 소개

사회가 발전할수록 우리는 나와는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차별에 대해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상처 입힐지도 몰라요. 차이와 차별, 편견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이게 차별이라고?》를 통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차별에 대한 문제를 짚어 보고 더 나은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요!

📖 주요 독후 활동



책 읽기 전 표지 살펴보기

책 속으로 ① 책 속 주요 장면 ② 다른 사람 이해하기

책을 읽고 나서 ① 나의 경험 나누기
② 나만의 유니버설 디자인



독서 전

책 읽기 전: 표지 살펴보기



1 책의 제목을 살펴봅시다.
이 책의 제목은 '이게 차별이라고?'입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걸까요?

2 표지 속 그림을 살펴봅시다.
- 차별이 벌어지는 여러 장면을 표지에 모아 놓았어요.
-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인가요?

이 책에서는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아요.

.....

.....

.....

.....

.....

.....





독서 중

책 속으로 ① 책 속 주요 장면

• 세상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한 일을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루이 브라우

버스에서 백인들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 이 일을 계기로 흑인 차별 반대 운동에 앞장섰다.



소피 제르맹

시각 장애인들이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점자를 개발하고 더 많은 시각 장애인이 이 편한 글자를 쓸 수 있도록 노력했다.



패트리샤 무어

여자가 마음껏 공부할 수 없던 때에 끝까지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위대한 수학자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다.



로자 파크스

노인의 삶을 직접 경험해 보고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발명했다.



독서 중

• 아래 그림 속 등장인물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나요? 여러분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입구에 계단만 있고
경사로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선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노키즈존이라
아이들은 들어갈 수 없는
식당이라.





독서 후

책을 읽고 나서 ① 나의 경험 나누기

- 책을 읽으며 차별의 상황과 차별을 극복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자체로 소중하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 줄 차례예요. 혹시 차별을 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마음이 어땠나요? 그리고 나에게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아요.





독서 후

책을 읽고 나서 ② 나만의 유니버설 디자인

- 패트리샤가 발명한 물건처럼, 장애가 있건 없건 나이가 많건 적건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제품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이용하다가 불편을 겪은 적이 있나요? 그런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나만의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을 만들어 보아요!

제품 모양

제품 설명



손잡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손힘이 약한 사람들이 물을 흘릴지도 모르는 상황을 방지한다.

쉽게 깜빡깜빡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끓는 물을 올려 두었다는 걸 소리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물이 끓으면 뽁뽁 소리가 난다.

제품 모양

제품 설명